

LG엔솔, 한화3사와 '배터리 동맹' 맺고 美 ESS시장 공략

(에너지저장시스템)

한화큐셀, 美 안정적 배터리 확보
한화모멘텀과 제조설비 관련 협력
한화에어로와 특수목적용 개발 등
배터리 분야 전방위적 협력 추진



16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배터리분야 전방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문승학 전기추진체계사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 신영준 CTO, 한화큐셀 이재규 GES사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 장승세 ESS사업부장, 한화모멘텀 류양식 이차전지사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 신기창 전극기술센터장.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이 미래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6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규셀부문, (주)한화 모멘텀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3사는 ESS 사업 등 배터리 관련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美 ESS시장에 안정적인 배터리 수요 확보...중장기 성장 노력

먼저 양측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ESS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은 미국 ESS 전용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배터리 뿐 아니라 ESS에 포함

되는 공조시스템, 전장부품 등 통합 시스템 솔루션의 기술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으로 한화큐셀은 안정적인 미국 전력 시장용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전력망의 안정화와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ESS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품 수요가 중요하다. 특히 미국 전력망 ESS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로 연간기준 2021년 9GWh에서 2031년 95GWh로 9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95GWh는 국내 기준 약 4000만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 충전 규모다.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

양광 모듈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은 이번 사업협력으로 안정적인 배터리 물량확보와 경쟁력 있는 제품 조달을 통해 태양광과 더불어 ESS 사업 개발 및 EPC 분야에서도 톱 클래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추가 확보하며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회사들은 "이로써 자동차전지, 소형전지부터 ESS 사업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3각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발전사인 비스트라(Vistra)에 단일 전력망

사이트 기준 세계 최대인 1.2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지난해에는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VerTech)'를 신설해 ESS 시스템 통합 분야에도 진출한 바 있다.

◆배터리 제조설비 협업·특수 목적 배터리 개발 공동 진행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모멘텀도 협력에 나선다. 한화모멘텀은 2차전지, 태양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 등의 다양한 고객사에 공정장비를 제공하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배터리 제조설비 관련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GM(일티엄1·2·3공장), 스티틀란티스, 혼다 등 주

요 완성차 업체와 함께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한국 오창, 폴란드, 미시간 등 기존 단독 공장들의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가 예정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신성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각 사의 배터리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및 ESS 사업 관련 고객가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고객에게 친환경 에너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ESS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구축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을 결정했다"며 "국내외에서 배터리 제조설비와 특수 목적용 배터리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용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T 인사 잠정연기... 구현모 대표 연임 변수

국민연금, 구 대표 연임 반대 행사 KT클라우드 투자 유치도 '올스톱'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단행할 예정이었던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미루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은 설 연휴 또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KT클라우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최근 전무급 이상 임원들과 만나 당초 이달로 잡혀 있었던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한 임원은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당분간은 현재 조직과 임원진으로 KT를 이끌어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총 이후까지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계열



사들이 있어서 주총 이후까지 연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부장급 이사 직원 및 상무보 승진 인사까지는 이미 단행했다. 상무 이상 임원인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연기에는 구 대표의 연임 문제가 깊숙히 관련돼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구 대표를 차기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확정했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바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여론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구 대표의 연임이 변수로 떠올랐다.

또 국민연금은 당초 KT의 지분율이 9.99%까지 낮아졌지만 지난 13일 지분율이 10.03%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분을 늘린 만큼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구 대표 연임 건에 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클라우드 투자 유치도 올스톱된

상태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T클라우드 투자 유치에 대한 본 입찰 진행 결과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국내 사모펀드 IMM 크레딧솔루션(ICS), VIG알터너티브크레딧(VAC), 미래에셋자산운용 PE 부문 등이 참여했다. 현재 IMMICR 등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적격상장, 보장수익률 제시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때 IMM IC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KKR은 투자조건으로 임원 선임권을 요구한 상황이라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KT클라우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주요 고객이 국내 주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MM ICS는 토종 PEF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유치 건의 최종 결과도 언제 나올 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KT클라우드의 빅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아우디, 17mm 더 길어진 콤팩트 SUV 출시

더 뉴 아우디 Q2 35 TDI 라인업
연비 16.7km/L, 4020만원 부터



더 뉴 아우디 Q2 35 TDI

아우디 콤팩트 SUV가 국내에 들어온다.

아우디코리아는 19일 더 뉴 아우디 Q2 35 TDI 라인업 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우디 Q2는 최첨단 기술에 실용성을 겸비한 콤팩트 SUV다. 이번에는 더 뉴 아우디 Q2 35 TDI와 프리미엄 2종으로 출시된다. 부분변경 모델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전 모델보다 17mm 더 길어졌다.

파워트레인은 2.0L 디젤 직분사터보차저 엔진에 7단 변속기를 조합한다. 공인복합연비는 16.7km/L로 1등급을 달성했다.

실내 공간은 5인승, 트렁크 용량은 405L다. 등받이를 접으면 1050L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프리미엄 모델에는 스포츠 시트도 적용한다.

가격은 트림별로 4020만2000원, 4363만8000원이다. 출시를 기념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승 기회와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재용 기자 juk@

KT, 가족 니즈 케어 '디즈니+' 혜택 강화

'가족 만족 프로젝트' 시행

KT는 가족 만족 프로젝트를 시행해 맞춤형 혜택으로 모든 가족의 니즈를 섬세하게 케어한다.

KT는 가족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 만족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가족 만족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즈니+ 제휴 혜택을 강화한다. 지니 TV와 최신형 셋톱박스 '지니 TV 셋톱박스 A'나 '지니 TV 셋톱박스 3'를 이용하는 고객은 미디어포털로 디즈니+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지니 TV 최신형 셋톱박스의 리모컨에는 디즈니+ 핫키가 적용된다.

IPTV 요금과 디즈니+ 이용료가 결합된 지니 TV 디즈니+ 초이스 요금제(월 2만5300원), 또 지니 TV 디즈니+월정액 서비스(월 9900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KT는 지니 TV에 디즈니+를 론칭한 기념으로 3월 31일까지 지니 TV 초이스 요금제와 최신형 셋톱박스로 신규 가입 또는 변경하는 고객에게 디즈니+를 2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폭스바겐, 지난해 전기차 57만여대 판매... 전년비 26% ↑

전체 인도량의 6.9% 차지
유럽 전기차 시장 선두 유지

폭스바겐그룹이 지난해 전동화 출고 비중을 크게 늘렸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전기차 57만2100대를 인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로 1.8% 포인트나 늘었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4위로,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전년보다 68% 더 많은 차량을 인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

판매 확대위원회 멤버인 힐데가르트

보트만은 "우리 브랜드들은 전동화로의 변화가 브랜드 전반에 걸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역풍을 뚫고 전체 전기차 점유율 목표치인 7~8%에 도달"했다며 "고객이 우리의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재용 기자 juk@